

학생인권조례, 청소년의 힘으로~

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

배경내



마침내 그날이 왔다! 제기랄..



중고등학생 최후의 날

학교개학





왜?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Together, An Exciting Kindergarten English

함께·신나는 유치원 영어체험

Chungcheongnamdo Geumsan Office of Education





그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5조 1항 같은 술의 인기 권리를 다한다. 5조 2항 술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하여야 한다. 5조 2항 제타기간 중 술은 감지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적이지는' 일대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6조 2항 갑 또는 베니지가 '요구'하는 공간 및 방송물등 중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11조 1항, 2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 과징액의 3배, 배상 이익금의 2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전속 계약서 차용)

동방신기는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팬클럽의 진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원숭이가 되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존엄하게 뚝 쌀 권리조차 없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비판적으로 구조를 읽어내는 힘이 중요하다

“엄마, 왜 오빠만 야쿠르트 시켜 줘?”

가족들에 대한
단순한 불만/
딸로 태어난
자신을 책망



야쿠르트를
독점했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현대의 살인마
놈을 잡은 건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다

그날 밤 놈을 쫓던 단 한 명의

추격자

김윤석 | 한정호 | 강동우 | 강도 | 나홍진

2008년 2월, 인삼자의 숨겨진 수적이 시작된다





경기도,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선포

서울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 지금 학교에 인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박정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체벌 전면 금지 정책

▶ 학생인권조례가 그리는 학교

- ▶ 자발성에 기초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 ▶ 체벌,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등 폭력 없는 학교생활
- ▶ 차이가 존중되고 차별 없는 학교생활
- ▶ 학생의 의견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생활
- ▶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학교생활
- ▶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등 돌봄이 있는 학교생활
- ▶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생활



학생인권조례, 왜 필요한가?



급 혼

네 성적에 잠이 오냐?

급 혼

우

아프니까

주

부담이

정

직업은

복

복습한다

급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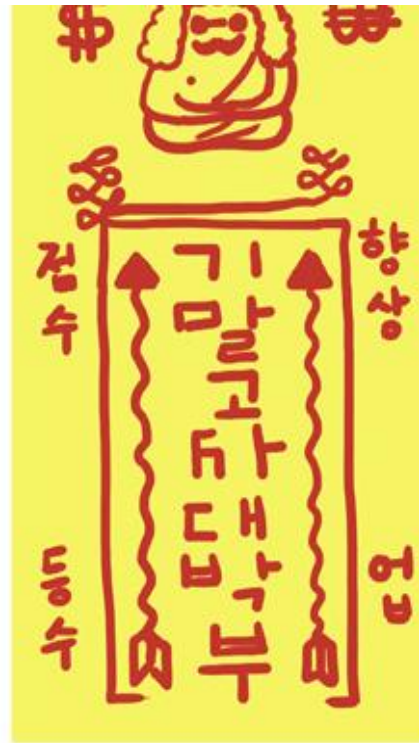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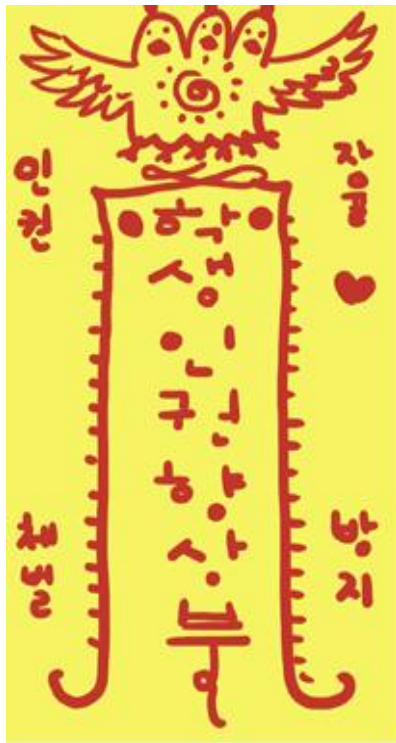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 할래,
공장가서 미싱 할래?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주요 초중등 교육정책 변화

항목	내용
영어 공교육 혁신	초3~6학년 정규 영어수업 확대, 재량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학습 확대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추진 및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강화
	영어몰입교육 보류, 단 서울 1개 초등학교 몰입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국제중학교 설립	내년 3월 영훈, 대원중 국제중으로 전환
	1단계 학생부 중심 5배수 선발, 2단계 토론 중심 3배수 선발, 3단계 추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2011년까지 농산어촌 지역 우수교를 중심으로 기숙형공립고 150개 지정, 지역 거점학교로 육성(올해 82개), 교원채용, 학사운영 등 자율화
	2012년까지 자율형사립고 100개교 도입
	2011년까지 미래형 직업전문고, 마이스터고교 50개 운영(올해 20개 지정)
고교선택제 실시	현재 서울 중2년생 2010년부터 최대 4개교까지 지원가능
	1단계 서울 전체 고교중 2곳 지원, 2단계 거주지 학교 2곳 지원, 3단계 인근학교 강제배정
학교자율화 추진	교과부 '0교시 수업', 우열반, 심야보충수업, 고교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후 학교, 사교육업체 운영가능
	서울시교육청, 이 가운데 '0교시 수업', 우열반은 금지
일제고사 부활	올해부터 초6, 중3, 고1 대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전국학력평가 실시
	2010년 시험부터 학교별 성적 3등급으로 나눠 공개
대입 3단계 자율화	2012학년도(현재 중3 적용)부터 수능 응시과목 축소 및 대입 완전자율화 실시





“체벌과 강제야자는 학생복지다”?







체벌은
학교의
폭력적 구조를
반영하고
재생산한다.

학교 안 힘의 피라미드



학생지도 가이드라인 '교과부 vs 서울·경기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 체벌 금지 간접적 체벌(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허용. 범위와 수준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함 	체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간접 체벌 모두 금지 모든 학교의 체벌관련 학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권조례로 체벌 금지 모든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가 학칙으로 정함 	두발 복장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학기부터 학칙 개정 통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권조례로 두발길이 규제 금지 파마·염색 자율 기준 마련 교외 명찰 착용 금지 및 고정식 명찰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자율성 위해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 	학칙 인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의 정책실현 제한, 교육자치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가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의도



간접 체벌은 체벌이 아니다?



콜 센터의
'서있는 체벌'과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조용했다.



투쟁은 사소한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지배자들에게는 법칙 아닌 것들 국가 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잡아갈 구실을 만들 수 있었다.

심지어 한 번은 빨간 양말 때문에 하루 종일 위원회에서 보낸 적도 있었다.



정권은 잘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바지가 충분히 긴 건가?

배일이 잘 뵈워졌나?

화장한 게 너무 진한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퍼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사상의 자유는 어디 있지?

나의 언론의 자유는?

내 삶은 실망한 걸까?

정치범들은 어떻게 된 걸까?



당연한 거다. 사람이 두려움론 가지면 분석과 사고의 개념을 잃게 되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언제나 두려움은 모든 독재 체제에서 억압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머리를 보이게 하거나 외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항의 행동이 된다.





- 김유신의 부친 : “무턱대고 분노했다간 집안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 김유신: “아닙니다. 분노가 먼저예요. 우리 집안의 이가 먼저가 아니라 분노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기에 우린 미실에게 놀아난 겁니다. 미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하여 우리는 분노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에 발목 잡혀 있나?**



<동아>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목표의 5% 그쳐

4월까지 10만명 채우기 어려워... 주민발의 실패 가능성

<조선>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실패할 듯

<뉴시스> 경기도 120여개교 학생인권조례에 '콧방귀'

<뉴데일리> 교장들 "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달세

<동아> 전교조, 혁신학교 동원 조례 서명 계획

'무서운 10대들' 청소년 조직 절도 잇따라

[2008-04-24 07:44:56]

성폭력 '불안한 10대 · 무서운 10대'

무서운 10대... '무면허에 대포차까지'

[2008-05-06 14:24:51]

무서운 10대 여학생들, 금품갈취에 절도

[2008-08-06 11:07:41]

학생인권의 얼굴은?



'추락하는 교권'...학생이 여교사 폭행

➤ 여교사 수난시대?



▲ 고등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진

- 선생님 꼬시기? 여교사 수난시대? 교권 문제로만 접근할 때 여교사는 피해자이자 무능교사로 전락
- 누가 표적으로 선택되었나? 상대적 약자인 신규, 비정규, 젊은 여교사가 주로 표적으로 선택되는 이유

☞ 폭력의 문화를 인권의 문화로 재구성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진짜 후보가 여기 왔다!!

7.30 서울교육감 선거

캐발랄 저은 후보

못 뽑으니까 나와봤대!

이딴 교육 받으면
이명박 된다!

★ 캐발랄한 핵심약속 ★

입시경쟁NO 다양&평등 교육으로~
 0교시, 강제야자, 보충수업, 우열반 안됨!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인권보장!
 영어교육정상화. 영어는 하나의 외국어일 뿐!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청소년 참가 Go~
 교사소환제/인권교육 등, 벌보단 소통과 변화!
 탈학교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서울시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http://csn08.tistory.com>

* 실제로 등록된 후보가 아님. 선거법 위반이라고 잡아가지 마셈.

레알 교육감 후보 청/소/년

청소년이 교육의 주인되는 그날까지!

어른들의 짝 막힌 귀를
삽질하라

못 뽑으니까 또 나왔다
청소년이 직접 한다!

청소년에게
교육선거 원할!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기호 0번 청소년

입시경쟁, 시험지옥 그만!
 두발복장자유, 체벌폐지, 강제야자보충 박멸!
 식욕 돋는 학교, 꿈을 꾸는 학교!
 빠져도 되지만 빠지기 싫어지는 학교!
 차별은 없고 차이는 존중받는 교육으로!
 학생에게 권력을! 학생에게 임금을!

선거위에 등록된
후보가 아님다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가지 마셈!

인권감수성을 갖는다는 것



“잘 보면 보입니다~”

- 인권의 세포를 되살리는 감수성과 의식의 중요성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공동체 생활규범

원칙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공동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 참여, 소통, 희망, 신뢰의 배움 공동체 가치를 구현한다.

각 구성원의 생활원칙

- 교사 : 체벌을 절대 하지 않는다. 욕설, 비속어, 증오발언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등
- 학부모 : 내 아이 중심에서 벗어난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등
- 학생 : 자신을 가꾸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함께 성장한다(기다리기보다는 협조를 청한다/ 도와주기보다는 함께 해결한다)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방향

- 학생생활인권규정 마련의 민주성, 합리성 추구
- 유의사항
 - 학생인권 존중 및 교사-학생 간 신뢰 구축 : 순간 감정 조절하기/ 교무실 호출 안 하기(벤치, 함께 걷기 등 활용)/ 무릎 꿇리기 안 하기/ 증오발언 안 하기/ 다수 앞에서 모욕주지 않기
 - 지도 전에 먼저 상담하기

 학교와 교사가 신뢰를 보여줄 때 생활교육이 된다

 수업혁신에 초점을 맞춘 장곡중, 차이는 '생활지도'에서 비롯



이우고의 화장실 테러 사건, 교사들의 선택은?



학교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자



☞ 자치와 인권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왜 직접행동이냐고요? 왜 연좌데모를 하는 거냐고요? ...비폭력 직접 행동은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사회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직접행동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 마틴 루터 킹



**학생인권조례,
역전만루홈런을 꿈꾸다**

➤ 역전의 비법

☞ 말을 건네자

☞ '관'에 기대는 사고를 버리자! 우리 힘으로 하자!

☞ 사회적 메시지를 바꾸자

: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 학생이기 이전에 먼저 사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 학생인권의 온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 학생인권조례로 시작합니다





✓ "가장 비싼 부작용도 가장 값싼 폭력보다는 낫다."

✓ "백신 접종을 맞는 시기다."